

우리들 모두의 축제

Festival for All of Us

이규환 / 정회원, 아키밸리 건축사사무소
by Lee, Kyu-hwan, KIRA
전시사업위원회 전문위원

feature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 동료건축사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행사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영역이 서로 달라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계획을 알리고 향후 업무협조를 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한시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 개막부터 5일간의 행사 후 폐막이 될 때까지 전시장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한 순간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건축사들의 관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발이 붓고 피로가 누적되어 갔지만 행사 기간 내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축사분들도 이러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감히 희망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할애한 많은 건축사분들께 보다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각자의 업무에 진정할 도움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들로 보다 가득 채웠어야 했습니다. 그러

나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저희들의 능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기불황을 비롯한 많은 주변요인들로 인해서 불안감에 몸을 움츠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만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려 동료 건축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시 및 교육준비를 함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로혁명 ;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첫째, 주제관 설치를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



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고하고,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행히 국내 최초로 100% 제로에너지하우스를 구현한 동로건축사님께서 흔쾌히 참여를 결정해 주셨고, 관련된 모든 수고를 도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새로운 접근법에 따른 예코시티 계획방법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건축사님께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시내용으로 충분히!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전시 하나로 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둘째, 불필요한 전시제품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우리 건축사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다 유익한 전시공간을 만들려는 지금의 노력이 나중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일부 전시제품이 전시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는 했지만 적절한 배치계획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전시와 더불어 교육 및 세미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제품강연회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세미나의 주제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발표 및 토론이 가능한 참여의 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여타의 전시회에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건축사들의 높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전시만의 전시회가 아니라 진정한 전시교육컨벤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준비와 진행을 맡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소득들도 많았습니다.

첫째, 국내 최고의 전문전시기획사들이 우리 전시회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올해는 비록 약속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 시간적인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건축사 및 협회의 전문성

과 그들의 전시기법이 합쳐진다면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전시회는 그 어떠한 외부행사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건축대학 및 건축후배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물론, 국내 대표적인 건축연구기관이 우리의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연구결과발표를 우리의 전시기간동안에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보다 살아있는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가치가 있는 전시회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미 농촌건축대전이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각종 중요한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제대로 반석 위에 오르기까지는 건축사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손으로 문을 두드린 전시회 참여업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선별하시어 좋은 제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전시회는 그분들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품선택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그 권한을 전시회 참여업체에 나누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건축사 여러분의 참여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우리가 주인인 행사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건축사 회원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전시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회. 우리가 건축의 최고 전문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전시회. 모두가 우리를 부럽게 바라볼 수 있는 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우리들 모두의 소중한 축제공간입니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